

## 역대 주임 신부들과 함께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성당, 본당의 날 야외미사·신앙수기 시상식 가져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 가톨릭교회 40주년 기념 야외미사에서 역대 주임신부들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왼쪽 두번째부터 박재우 신부, 강윤철 신부, 박광진 부제, 이형수 몬시뇰, 백남국 신부, 최재상 신부).

【미시간】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 가톨릭교회(주임 박재우 베드로 푸리에 신부)는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6월 7일(일) 오전 11시 Kensington Metro Park에서 '본당의 날 야외미사'를 거행했다.

이날 미사는 이형수 몬시뇰(마산교구 완월동 본당 주임서리, 디트로이트 본당 제7대 주임)이 주례하고, 박재우 신부, 강윤철 신부(마산교구 삼천포 본당 주임, 디트로이트 본당 제5대 주임), 백남국 신부(마산교구 대방동 본당 주임, 디트로이트 본당 제8대 주임), 최재상 신부(신시내티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성당 주임), 본당 출신 종신 부제인 박광진(디트로이트 대교구 St. Patrick 본당) 부제가 함께 집전했다.

이 미사에는 랜싱 공소 신자들을 포함약 550명의 신자가 참석해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형수 몬시뇰은 강론에서 "디트로이트 한인성당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40년을 맞게 된 것을 축하하며,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해 더욱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디트로이트 본당이 40년, 400년을 가기 위해서 신앙인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사 후에는 15구역과 랜싱 공소신자들을 소망, 사랑, 믿음, 평화 4팀으로 나누어 팀마다 사제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각 구역별로 준비한 열띤 장기자랑을 감상하면서 화기에애한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야외미사 준비위원들은 날씨 관계로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던 운동경기, 성경 퀴즈, 본당 연혁 퀴즈 게임 등을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풍성한 대자연 속에서 서로가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던 평화로운 하루였다고 평가했다.

김유식 루카 사목회장은 "본당 40주년을 맞이해 멀리 한국에서까지 어려운 길을 헤쳐온 사제와 함께 미사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라 생각한다. 또한 본당 40주년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신자가 모인 것을 보니 가슴이 너무 벅차다. 그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보답해야 하는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신자가 되자"고 자축했다.

또한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성당은 본당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신앙수기를 공모해 16편의 신앙수기를 모집했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야외미사 중 신앙수기의 최우수상과 우수상 당선자를 발표했다.

미사 후 최우수상을 받은 박영선 데레사가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선작을 직접 낭독해 듣는 이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우수상에는 최선아 루시아의 '나는 누구인가'와 랜싱 공소의 소민영 엘리사벳의 'Here I am'이 선정됐다.

박영선 데레사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다. 본당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나의 신앙생활 30년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첫째는 주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표양을 스스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선택의 자유는 우리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사/사진 제공: 이종효 요한, 최승호 베드로, 김영근 토마스

##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이미숙 수녀 지도로 '제 21차 북가주 성령대회' 개최

【캘리포니아】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지도 신부 한승주 스테파노, 회장 임지현 마리안나)는 이미숙 아가다 수녀(웃음 치료사,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소속)를 감사로 초빙해 '제21차 북가주 성령대회'를 6월6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성령대회에는 북가주 지역 6개 본당에서 450여 명이 참가했고, 주제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예제 36, 26)였다. 한승주 신부는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제로 선택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심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른다. 우리 삶을 늘 좋은 쪽으로 바꿔

강의 후 성체조배, 자비의 기도, 묵상이 있었고, 2시간에 걸쳐 치유 안수예절을 통해 참석자들은 뜨거운 성령의 축복을 받았다.

조병국 바오로(오를랜드 성당)는 "나이가 들어 평일미사, 성시간, 성령기도회 등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 내 신앙의 질적 향상이 어렵다. 이번 성령대회에서 "하나님을 믿어라"는 단순한 말씀을 통해 많은 감동이 한꺼번에 해소된 느낌이다"고 말했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해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성이 담긴 깊은 사과'라는 이 아가다 수녀 말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는 제 21차 북가주 성령대회를 위한 54일 중재기도를 바쳤고, 성



'제 21차 북가주 성령대회' 찬양 봉사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주는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며 대회를 시작했다.

이미숙 아가다 수녀는 "모든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우리의 절망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어 원초의 계획보다 100배 더 나은 창대한 꿈의 실현과 생명을 주심을 자신을 삶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이 아가다 수녀는 "강의에 앞서 성령계 가정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기도했다. 가정공동체의 불화로 인한 빈자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비록 고통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곳에는 희망과 꿈이 다시 채워져 깨어진 가정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고 아이들이 울부짖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다"고 했다.

령대회 일주일 전에는 '24시간 릴레이 말씀 조배'를 위해 각 성당에서 20여 명을 특별히 뽑아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시간씩 신약성경을 읽고 다음 참가자에게 메시지나 이메일로 각자가 읽은 끝부분을 알려주어 끊이지 않고 성경일기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최봉락 미카엘과 최혜인 모니카 부부(샌프란시스코 성당)는 "처음 참여해보는 24시간 릴레이 말씀 조배를 통해 말씀의 새로운 의미를 느꼈고, 참가자들이 모두 각각 다른 북가주 도시에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는 오는 10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은사 기초 성령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기사/사진 제공: 천홍욱 다니엘

### 칼럼

#### 제17회 '불우이웃과 노숙자를 위한 나눔의 바자회'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지도신부: 조상연 스테파노)가 주관하는 나눔의 바자회에 다양한 한식 장터와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얻어지는 수익금 전액은 맨하탄 지역 노숙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여지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 일시: 6월 21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 장소: 맨하탄 브로드웨이 31st - 32st
- ▶ 문의: 박동현 행사위원장 (516) 467-7003

## 미 동남부 여성 제8차 꾸르실료



기간: 6월 18일(목) - 21일(일)

장소: Carmel Retreat Center

415 Old Collins Road, Hoschton, GA 30548

차수지도: 김형렬(요셉/어거스타, GA)

차수회장: 김정애(안나)

발랑카 접수는 송인석 가브리엘 song.g.inseok@gmail.com

주님은 양식만을 벌습니까...

미 동남부 꾸르실료 사무국

지도신부: 김영수(스테파노/잭슨빌, FL), 주간: 이우삼(알렉스)

